

선주 비구의 법문

선재동자는 해운 비구로부터 남쪽으로 60유순쯤 가서 능가(楞伽山) 가는 길옆의 해안(海岸)이라는 마을에 선주(善住) 비구를 찾아가 보살행을 물으라는 가르침을 듣고 그를 찾아간다. 그 마을에 이르러 선주 비구를 찾다가 이 비구가 허공에서 거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곳을 보니 무수한 천신과 용왕, 긴나라왕, 마후라가왕, 아수라왕, 가루라왕, 나찰왕, 아차왕, 범천왕, 정거천인(淨居天人)들이 합장, 경례, 공양, 찬탄하고 있었다. 이것을 본 선재동자도 환희하여 선주 비구에게 합장 예경하면서 보살이 어떻게 불법을 수행하는지 등에 대해 가르침을 청했다.

의 마음과 행을 아는 데 걸림이 없고, 죽고 나는 것을 아는 데 걸림이 없고, 지난 세상 해탈(海脫)이라는 마을에 선주(善住) 비구를 찾아가 보살행을 물으라는 가르침을 듣고 그를 찾아간다. 그 마을에 이르러 선주 비구를 찾다가 이 비구가 허공에서 거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곳을 보니 무수한 천신과 용왕, 긴나라왕, 마후라가왕, 아수라왕, 가루라왕, 나찰왕, 아차왕, 범천왕, 정거천인(淨居天人)들이 합장, 경례, 공양, 찬탄하고 있었다. 이것을 본 선재동자도 환희하여 선주 비구에게 합장 예경하면서 보살이 어떻게 불법을 수행하는지 등에 대해 가르침을 청했다.

어디에도 걸림없는 지혜 광명 터득

훌륭하게 현실계에서 생활하는 보살

데 걸림이 없고... 이 몸으로 사방의 모든 세계를 두루 이르는 데 걸림이 없나니, 왜 나하면 아무것도 없고 갖는 일도 없는 신통한 힘을 얻은 연고이나라.

선남자여, 나는 이 신통한 힘을 얻었으므로 허공에 다니고 서고 앉고 눕기도 하며, 숨고 나타나기도 하고, 한 몸도 나타나고 여러 몸도 나타낸다. 장벽을 뚫고 나가기를 허공처럼 하고, 공중에서 가부좌하고

자유롭게 가고 오는 것이 나는 새와 같이 하며, 땅 속에 들어가기로 물과 같이 하고 물을 밟고 가기를 땅과 같이 하며... 한 생각 동안에 동방으로 한 세계도 지나가고, 두 세계 · 백 세계 · 천 세계 · 백천 세계 · 한량없는 세계와 말할 수 없는 세계를 지나기도 하며... 저 세계의 모든 중생을 내가 다 분명하게 보고 그들의 크고 작고 잘나고 못나고 괴롭고 즐거움을 따라 그 형상과 같은 몸으로 교화하여 성취하게 하며, 만일 나를 진전하는 중생은 모두 이러한 법문에 편안히 머물게 하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부처님께 공양하고 중생들을 빨리 성취시키는 데 걸림 없는 해탈문만을 알거니와, 저 보살들이 크게 가없이 여기는 계행 · 바라밀다 계행 · 대승의 계행 · 보살의 도와 서로 응하는

계행... 때를 여윈 계행을 가지나니 이러한 공덕이 내가 어떻게 알며 말하겠는가."

이상과 같이 선주 비구가 성취한 것은 '보살의 무애 해탈문'이다. 그는 오고 가며 다니고 머무는 적에 항상 생각하고 뒤고 관찰해서 어디에도 걸림없는 지혜의 광명을 얻게 됐다. 이 때문에 일체의 것을 아는 데에 걸림이 없고, 몸으로 사방의 모든 세계에 두루 이르는 데도 걸림이 없다. 그

리하여 모든 세계의 부처님을 공양하고 모든 세계 중생의 모습과 처지에 따라 적절히 교화하고 성취시킬 수도 있다.

선주 비구는 지혜로써 미혹함을 모두 다 스러져 어디에 머무는 바도 없다. 선주 비구는 고요함과 시끄러움에 집착하지 않고, 오염과 청정의 경계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주 비구는 그 이름처럼 훌륭하게 현실 세계에 머물면서 생활하는 사람인 것이다.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선주 비구는 항상 모든 부처님을 공경, 공양하고 중생들을 각성시키고 정화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이러한 자제는 보살도의 근본인 동시에 대승의 계(戒) 가운데에서도 중심이 된다. 모든 부처님을 공경, 공양하고 중생들을 개화(開化)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선주 비구에게는 이미 계(戒)로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덕은 비구의 열불삼매의 법문을 통해 부처님(佛)과 선정(定)에 관한 것을 배우고, 해운 비구의 큰 바다를 관찰하는 법문을 통해 진리(法)와 지혜(慧)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선재동자는 이제 다시 선주 비구로부터 불도 수행자(僧)와 계(戒)에 관한 것을 배우게 된 것이다. 선재동자는 이 둘 세 비구들로부터 부처님과 부처님이 설하는 진리,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 [三寶]에 대해 배우고, 실천적으로는 마음을 집중 통일하는 것, 진리를 바르게 관하는 것, 바른 생활규범에 따라 생활하는 것 [계정재 삼행]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다.

<글감다 불교문화학부 교수>



이제의 원리와 DNA

불교에서는 물질은 두고 말할 때, 중생의 눈에 보이는 부분을 속제, 가제(假語), 유위법(有爲法) 혹은 의연진어(依言眞如)라 부르고, 범부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부처님의 눈에만 보이는 부분을 진제(眞諦), 승의제(勝義諦), 제일의제(第一義諦), 무위법(無爲法) 혹은 이연진어(依言眞如)라고 부른다. 다시 말하면 물질은 2중 구조를 하고 있음을 말하며 이제의 원리란 바로 2중 구조의 원리란 뜻이다. 따라서 인간 눈에 보이는 부분인 속제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제일의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현대의학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현대의학에서는 인간의 몸은 오로지 현미경으로 보이는 부분인 분

현상(phantom effect)이라고 불렀다. 이같은 DNA의 환영 현상이 생기는 것은 DNA의 진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산타페 연구소의 진화 생물학자 카프만(S. Kauffman)은 유전자 계놈(genome)에 대한 이진(二進) 연결망을 만드는데 성공했는데 이같은 계놈의 이진 연결망이 가능한 것은 계놈에 진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내과 의사 초프라(D. Chopra)는 유전자들이 DNA라는 분자 자체에 정보가 들어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양자물리학이 없던 시절에 막연히 생각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DNA도 양자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입자와 파동의 이중구조이기 때문에, 오로지 현미경으로 보이는 부분인 분

사람의 몸도 속제·제일의제로 구성

DNA 정보는 정보장인 진제에 존재

자까지의 존재만 인정하고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인, 불교에서 말하는 제일의제와 같은 것은 알지 못했다.

그러면 과연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분자, 세포, 조직 및 장기 등은 이중 구조를 하고 있는지 최근의 과학 지식으로 한 번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장 먼저 DNA 분자는 그 속에 진제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필자는 현대 과학 용어 중에 불교의 진제와 가장 어울리는 용어는 정보장, 에너지장 혹은 정보-에너지장으로 가정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문헌을 고찰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포포닌(V. Poponin) 박사는 DNA분자에 레이저를 비추어 회절 패턴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DNA의 회절상이 DNA를 제거한 후에도 여러 주일 동안 남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을 DNA의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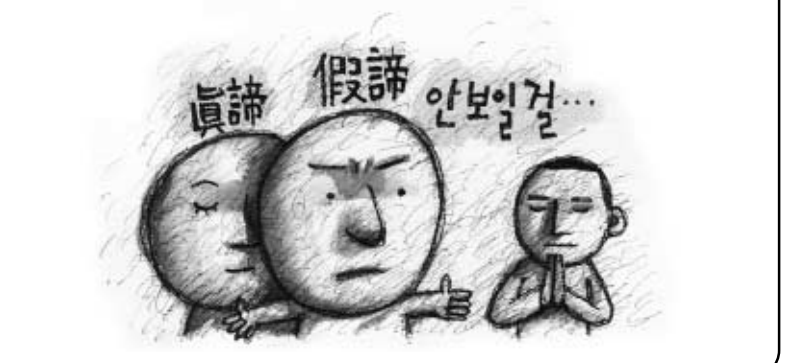
아니라 DNA의 파동, 즉 정보장에 들어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정보장은 진제(眞諦)를 말한다.

미국 프린스턴대학의 공대교수 잔(R.G. Jahn)은 바이러스(RNA 혹은 DNA로 된)도 정보를 만들어내고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다며, 그 때문에 정보장(진제)을 갖고 있다고 했다.

독일 생물 물리학자 포프(F.A. Popp)는 DNA로부터 생체광자(biophoton)가 방사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생체광자는 DNA의 정보장(진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불교의 '이제'의 원리로부터 배워야 할 점은 DNA의 정보 프로그램은 분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DNA의 정보장, 즉 불교 용어로 말하면 진제에 있다는 사실이다.

■ 송남대 의대 산부인과학



보조지들의 '간화결의론' 16

보조의 삼현문(三玄門)

삼현문(三玄門)은 진리에 나아가는 세 가지의 깊은 문을 말한다. 본래 임제(臨濟) 선사가 삼현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보조스님은 삼현문을 두 가지 맥락에서 사용한다. 하나는 <원문성 불문>에서 돈교와 선문의 가르침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사용된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진리에 들어가는 방법이 근거에 따라 다르다는 교판론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보조스님이 말하는 삼현문은 체중현(體中玄), 구중현(句中玄), 현중현(玄中玄)을 말하는데, 이것의 전거는 송고(承古)선사의 어록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상세한 의미부여는 보조스님이 가장 상세하고 다양한 해석을 보여준다. 체중현(體中玄)이란 '이제'에 의거한 깊은 문'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차관 교화에서 말하는 이치를 말한다. 유식(唯識)의

'오직 마음이다'라든지, 화엄원교(華嚴圓教)에서 말하는 '사물들 사이에 장애가 없다'는 사사무애법계(事事無礙法界)를 의미한다. 끝없는 세계가 나와 남이 터럭만 킁드 서로 차별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에 직면한 마음과 전혀 차별이 없다는

진리를 그 자체로 증득하는 사교입선 과정

화엄의 가르침을 말한다. 그러나 보조스님은 이런 교화적인 이치만을 강조한 가르침은 개념적인 이해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불법에 대한 지견을 펼쳐버리지 못한

다고 말한다. 구중현(句中玄)은 '언구에 의지하여 깊은 문에 들어감'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언구(言句)는 교화에서 말하는 언설에 의한 가르침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의미 없는 말로서, '플 앞의 잣나무'

나 '삼 세 근'과 같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화두로서 연구를 의미한다.

이것은 교화의 개념적인 이해의 한계를 깨뜨리는 언어이다. 일반적인 언어는 의미를 지시하지만, 화두는 의미를 지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의미를 깨뜨리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메타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구중현은 체중현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언어적 이해의 수준을 깨뜨려서 그것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현중현(玄中玄)은 '깊은 가운데 깊은 문'을 의미한다. 구중현이 교화

적인 이해를 펼쳐버리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집착을 놓는다는 연구가 남아 있어서, 존재하는 삶 그 자체를 드러내는데 장애가 된다. 현중현은 주장자를 쳐들거나, 잠깐 동안의 침묵이나 방, 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여기서 앞의 체중현이나, 구중현의 흔적을 벗어난다. 바로 이 자리가 '뜻을 있고, 말을 있는'다는 단박에 법계를 증득한 자리라고 보조스님은 말한다. 여기서야 비로

소 삶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한다.

보조지들 스님의 선사상에서 삼현문은 그의 독자적인 사상을 엿보게 하는 중요한 체계이다. 삼현문은 교화를 벗어나서 진리를 그 자체로 증득하는 사교입선(捨教入禪)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점은 화엄과 선문의 가르침을 구별짓는 교판론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것도 있다. <간화결의론>에서는 한결을 더 나아가서 삼현문을 역시 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술함으로써, 삼현문이라는 과정과 절차까지도 놓아버리는 본래의 건강한 자연 상태를 그대로 드러냄을 강조한다. 아무리 높은 가르침이라고 해도 역시 그것은 방편이고, 언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들처럼 병든 환자는 우선 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병이 치료되면 그는 다시 병원에서 퇴원하여 일상으로 복귀해야 한다. 그러나 완전한 복귀는 재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병을 위한 교화이나 선문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에는 잠깐 몸을 머물 곳이지, 최종적인 안식처는 아니라고 말이다.

■ 인경(禪상담연구원장)

(02-733-5311, www.seontherapy.org)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주문가능)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은 평안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

납골추모함은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은 물론 참배까지 쾌적하게 해주는 현재와 미래의 정례문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함을 같은 정소에 많이 모셨을 경우 납골함 자체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봉구의 우려가 있으며, 오래된 유골에서는 강한 악취가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회사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 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탑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

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탑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람입니다.

새로운 납골추모함이 이러한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랜 연구 끝에 제작 출시 되었습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안전성과 청결성을 갖춘 납골추모함으로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히 모실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이 회사 ☎ 02)392-092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5-2 GS빌딩

초파일 기간 성원에 보답 35% 할인판매

특별 무료보시품

본 기간 중 주문하시는 모든 스님들께 고성능 마이크 1대(가격 : 75,000원) 무료 보시!

※ 할인판매 기간 : 6월 10일 까지 품목별 선착순



아무리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리게 하는 기적의 고성능 마이크 DX-707 스탠드 마이크 ● 판매가 : 250,000원



법당전용 高音質 스피커 모델 : YM-520 ● 판매가 : 500,000원

⇒ 선착순 20분개 ● 특별가 : 165,000원

⇒ 선착순 10분개 ● 특별가 : 330,000원

◇ 최고급 무선마이크 2인용 1조 ◇

1셋트 판매가 : 550,000원

⇒ 선착순 10분개 ● 특별가 : 380,000원

송금구좌 : 하나은행 예금주 : 김민희 369-810664-39707

유 코 음 향 연구 소

소장 김민희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경림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